

이웃 강아지

일을 마친 후 해가 기우는 저녁 시간에 집 앞에 나와 앉아 있던 이웃과 모처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인 목사님의 자녀인데 혼자 살아가는 60대 정도의 여성이었다. 발 수술을 한 후 잘 걸지를 못해서 좋은 날씨를 즐기며 밖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모처럼 시간이 맞아 만난 것이다.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분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나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관심을 끄고 살아갔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 무릎이 축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쪽을 보니 그 집의 작은 강아지가 내 바지 무릎을 열심히 핥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고리를 흔들면서 열심히 핥는지? 무릎을 움직이기 미안할 정도였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묻힌 테리야기 소스(Sauce)를 핥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에 묻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강아지는 냄새로도 알고 한 번 핥아 보니 너무나 맛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날 이웃을 위하여 먹을 것도 조금은 묻히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웃에게 관심 없이 4년을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운 때에 더 미안하라고 강아지가 내 바지를 핥으며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다.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그들은 바로 옆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라고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부르심이다. 우리들의 이웃은 같은 문화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웃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날 주위의 있는 몇 이웃에게 닭고기와 불고기를 준비하여 전달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아저씨는 저 멀리에서도 손을 흔들어 출근하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 물론 다른 집 그 강아지도 나를 보면 달려와서 냄새를 맡는다.

다음부터 집으로 올 때에는 일부러 소스를 조금 묻혀야겠다. 강아지도 나의 이웃이기 때문이다.